**제16과 아사 왕의 개혁** 2018.4.22

◎ 찬송가(다같이) : 351장(통일 389장), 406장(통일 464장)

◎ 신앙고백(다같이) : 사도신경

◎ 말씀봉독(다같이) : 역대하 14장 2∼7절

◎ 본문읽기　◎ 주기도문(다같이) : 맨 마지막에

**◎ 오늘의 만나**　신앙생활의 위기는 영적침체에서 출발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침체에 빠져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번 과에서는 남유다 아사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통해 영적침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선과 정의를 행함**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대하 14:2). 아사 왕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것을 ‘코람 데오의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록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큰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한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음을 의식해야 합니다(시 139:2∼4).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사 왕처럼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우상을 없앰**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대하 14:3).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때 태후의 지위를 폐할 정도로 단호하고 과감하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대하 15:16). 이처럼 아사 왕은 사사로운 인정이나 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을 추진해나갔습니다.

신앙개혁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개혁은 먼저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신앙 개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 우리 삶 속의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산당을 부수듯이 그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의 우상을 멸하고, 탐욕과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인본주의, 원망과 불평의 우상을 멸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함**

아사 왕은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대하 14:4).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구하고 찾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걸게 했습니다(대하 15:12∼13).

역대하 15장 15절은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를 찾았으므로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의 옷을 입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합니다(신 28:12∼14).

**4. 아사 왕에게 임한 축복**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우상을 없애고 말씀을 지켜 행하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유다를 크게 축복해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완벽한 국방을 위해 허물어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튼튼한 성벽을 세워 유다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구스(에티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 대군과 최첨단 무기인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병력 58만 명과 구스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은 유다에게 전혀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이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군대를 치심으로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진멸하게 했습니다(대하 14:9∼13).

아사 왕의 부르짖음은 이 전쟁이 유다와 구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구스의 전쟁이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원수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아사 왕 제35년까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와 번영을 누려야 합니다.

**◎ 간추린 만나**

<선과 정의를 행함>

1.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없앰>

1.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2.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함>

1.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2.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합니다.

<아사 왕에게 임한 축복>

1. 하나님은 아사 왕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유다를 크게 축복해주셨습니다.

2.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 내 삶의 만나

<옆 사람에게 인사>　1.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2.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3.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기 도>

1.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2.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3.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시다.

<중보기도>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합시다.